

죽음도 무릅쓰고 정보 구해

전화속 사찰지킴

호법신장

■상원사와 한암스님

"법당과 함께 나도 화장" 기개에 놀라 군 소각철회

"나는 부처님의 제자야. 중이란 원래 죽으면 화장하는 법. 나는 여기서 힘 안들이고 저절로 화장될 터이니 당신들은 장군의 명령대로 어서 불을 지르게. 상관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결과도 될테고, 다시 말해서 양쪽 모두 잡되는 일이란 거야. 나로서도 중의 본분을 마지막까지 제대로 지킨다 할 것이니 더욱 이를 말인가. 나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불을 지르게."

1951년 1·4 후퇴 직전 야밤에 대원들을 이끌고 상원사로 와서 절을 불태울 것을 알리는 국군장교에게 한암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북한 공산군들이 사찰을 근거지로 하여 국군에게 많은 타격을 준다는 판단 아래, 오대산 안의 모든 사찰을 소각시키도록 명령받은 군인들이 산내 민가까지 모두 불태울 때였다.

한암스님은 군인들에게 잠깐 기다리도록 이르고는 가사와 장상을 갈아입은 뒤 법당으로 들어가 좌정하고 불을 지르려며 눈을 감았다. 결국 한암스님의 기개에 놀린 장교는 부하들에게 법당의 문짝만을 때어 불사르게 한 뒤 돌아갔다. 전쟁 중 오대산 100리 민족은 국군 작전지역으로 월경사와 상원사를 포함한 모든 사찰과 민가들이



◇기개로 상원사를 지켰던 한암스님.

타격 비어 있었고, 한암스님과 2명의 사미인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상원사를 지켜낸 스님은 1951년 불 유엔군의 서울수복으로 38선 이남이 다시 국군에게 장악되자마자 가사와 장상을 입은 후 선상에 올라 정좌한 채 좌탁입망했다.

현재 스님의 선종이 서려있는 청량선원에는 30여명의 스님이 참선수행을 하며 한암스님의 기개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탄허, 민화스님 등 한암스님 문도들은 1959년 3월 상원사에 한암스님 부도와 비를 세웠으며, 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올 4월 또다시 비를 세워 스님의 공덕을 기리고 있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opia.com)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장지랑 장군.

전 공군참모총장 장지랑 장군(76)은 해마다 6·25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깊은 감회에 잠긴다. '명령에 따라 해인사를 폭격했다더라'면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됐을까... 장지랑 장군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진다.

51년 8월 경남 사천에서 제1전투비행단 작전참모를 맡고 있었던 장중령(당시 계급에게 미국비행교수단으로부터 해인사 폭격명령이 하달됐다. 장중령은 즉시 전투비행단에 폭탄과 로켓을 장착한 F-51전투기 4대의 출격대기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인민군 몇 명 잡자고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를 폭격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스쳤다. 고민 끝에 명령을 거부하기도 결심을 굳

■해인사와 장지랑 장군

민족혼 깃든 정보 살리자 미 비행단 폭격명령 거부

했다. 출격이 지연되자 상부에서는 전투기를 출격시키라는 폭격명령이 계속 하달됐다. 그러나 장중령은 시간을 끌었고 결국엔 날이 어두워져 출격이 중단됐다. 팔만대장경은 그렇게 지켜졌다. "상부로부터 사실명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육숨이 위태로웠지만 팔만대장경을 지켜야 한다는 제 뜻이 받아들여져 죽음을 면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것은 내 자신이 불교신자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뛰어난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서였습니다."

장중령은 전쟁이 끝난 뒤에 팔만대장경을 직접 보고는 당시의 결정이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새삼 느꼈다고 회고했다. 만약 군인정신만을 고집하며 상부의 명령대로 해인사를 폭격했다더라면 이렇게 위대한 문화재가 흔적없이 사라졌을테고, 후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장중령은 66년 제9대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됐으며 68년 8월에 예편했다. 69년부터 79년까지 아이디어, 필리핀, 덴마크 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6·25 기념사업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영우 기자(mwhan@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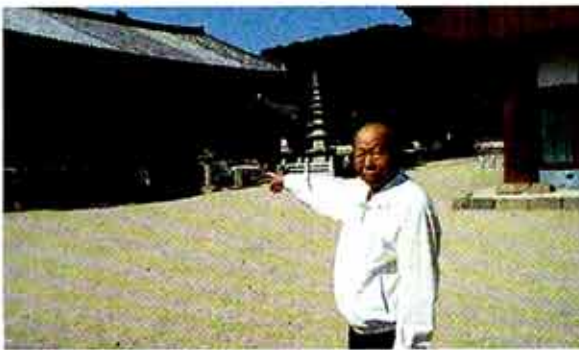
6·25 50주년 특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료 사찰을 찾은 관광객 수는 2천1백만명이라고 한다. 해마다 2천만명 이상이 전국의 고찰을 찾아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 그러나 고찰이라고 말은 해도 최근 중창한 곳이 많아 수백년 세월의 고풍스런 역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세월이, 6·25 탓이다.

6·25는 상당수 사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38선 일대와 지리산 일대 사찰들의 피해가 엄청났다. 공비소탕 등의 이유로 수많은 전각과 성보들이 한층 잿더미로 변했다. 하지만 전란 속에서도 본 모습을 힘있게 지키고 참들이 있다. 그것은 사찰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고의 수행도량 상원사,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해인사, 선운사, 화엄사를 지켜냈던 내 사찰, 한국불교를, 우리 민족문화를 대표할만한 이들 네 사찰은 그들 호법신장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6·25 50주년을 맞아 이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불심과 용기 앞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이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해 본다.



◇6·25를 며칠 앞두고 선운사를 찾은 김재환 중.

■선운사와 김재환 중

공비소탕 이유 소각 작전 "천년명찰" 간곡하게 만류

1950년 12월 15일, 천년고찰의 그윽한 향기와 산중의 고적함이 멋스러운 고향 선운사. 육군 화랑부대로부터 공비 소탕을 이유로 선운사 소각 명령이 내려졌다.

"전북 전 지역을 수복한 상태에서 빨치산 토벌은 시간문제입니다. 한 순간을 참지 못해 조상의 업이 서려 있는 고찰을 불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니다." 6·25 50주년을 며칠 앞두고 선운사를 다시 찾은 김재환중(74세)의 감회는 남다르다.

선암사 앞대는 3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험준한 지형으로 당시 빨치산들의 활동 본거지였다. 당시 고창경찰서 반암출장소장으로 이 지역 치안책임자였던 김웅은 잦은 공비출몰 때문에 작전상 선운사를 소각하려는 군부대의 작전명령을 간곡하게 설득하고 막아내 전 소위기에 처한 선운사를 지켜냈다. 천년 고찰과 수많은 문화재를 불태우면 그 복구는 과연 누가 하겠는가라는 생각에 순순히 명령을 따를 수는 없었다. 김 중은 당시를 회고하듯 선운사 아랫자락을 살피면서 "사중 스님들을 모두 피신 시키고 홀로 선운사를 지키던 당시 주지 호법스님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 줬다는 이유로 공비들에게 산골짜기에 끌려가 들어 맞아 운명했다"고 슬피하며 스님의 극락향생을 빌듯 잠시 눈을 감았다.

김 중은 61년 이라역전 파출소장을 끝으로 퇴임한 후 현재 고향 부안에서 살고 있다. 6·25 당시 지내고 있던 호선불을 50년이 지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는 김 중은 5월4일 선운사로부터 선운사를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도필선 기자(psd0@buddhopia.com)

■화엄사와 차일혁 총경

빨치산 토벌때 소실위기 문짝만 태우고 징계 감수

"화엄사를 소각하라." 6·25 전쟁 중 빨치산 토벌대장인 차일혁 총경(1920~58)은 상부로부터 이 같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화엄사는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었다. 또 개인적으로 화엄사 각황전은 어머니의 기도처였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깊은 불심을 키워왔던 그에게 화엄사 소각명령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내장사가 불타 때 눈물을 흘리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던 차 총경은 1백여명의 대원을 이끌고 화엄사에 도착했다. 차 총경은 부하들에게 각황전 문짝을 모두 때어와 대웅전 앞에 쌓아 놓게했다. 그리고 불을 지르며 이렇게 말했다. "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으니 이를 어길 순 없다. 그러나 문짝을 태운 것도 태운 것이니 명령은 이행한 것이다."

그 후 그는 작전명령 불이행으로 감봉처분을 받았다. 화엄사뿐 아니라 이후 차 총경은 천은사 백양사 쌍계사 금강산 선운사 등 전라도의 명찰들을 전하로부터 구해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에 대해 1958년 조계종 초대 총경이었던 효



◇교계는 차일혁 총경의, 화엄사를 비롯한 전라도의 많은 고찰들을 전하로부터 구한 공적을 기려 98년 화엄사에 공적비를 세웠다.

봉스님은 감사장을 수여하고 고마움을 표시했고, 조계종은 98년 6월 화엄사 경내, 연화당 바로 밑 넓은 공터에 그를 기리는 '차일혁 총경 공적비'를 건립해 그의 높은 뜻과 공적을 기리고 있다.

침몰해 금강산 신계사에서 6개월동안 행자생활을 하기도 한 차일혁 총경은 화엄사를 구한후 공갈 "불멸의 의지에 살아있기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되뇌곤 했다고 아들 차길진 법사는 전한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opia.com)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공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항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기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길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향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육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hyeangbang.hihome.com>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